믿음으로 걷기

성경말씀: 고후5:6-7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입신, 방언, 신유, 웃기, 괴성 지르기, 손 들고 서기, 성령 터널, 사자처럼 부르짖기, 개처럼 끈 매고 다니기, 늑대처럼 울기, 금이빨이 생긴다고 좋아하기 등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 체험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 신비주의이다. 이반 종교
믿음은 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설득을 받아 신뢰하는 것이다. 기독교

1. 믿음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믿음과 은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엡2:8).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수없이 듣지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또 믿음에 대해 오해한다.
히4:2,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고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든지 혹은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혹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소원이며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음이다.
<u>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u>.
자동차, 전철, 엘리베이터 타는 것, 5층에 올라온 것, 육교를 건너는 것, 큰 개를 키우는 것, 친구에게 내일 3시에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실패할 수 있다.
다리가 부실한 의자, 아무리 내 믿음이 커도 그 의자에 앉으면 곧 넘어질 수밖에 없다.

성도들도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일의 성취를 믿는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크리스천 믿음의 근본은 믿음의 대상에 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 보았는가? 누구나 사랑하면 대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u>그러므로 믿음이 효력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는 믿음의 대상에 달려 있다</u>. 나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아니면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다.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종잇장 같은 존재인가? 종이 호랑이인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하며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바른 존재인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믿음의 대상이 기적인가, 방언인가? 신유인가? 성도들의 숫자인가? 재정인가? 목사인가?

<u>우리 믿음의 대상은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u>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인가?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인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에 뿌린 사람들은 모두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맏아들은 모두 죽이신 그 하나님인가?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신 분인가? 여리고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하나님인가? 키가 3.5미터나 되는 거인 골리앗을 맨손으로 이긴 다윗의 하나님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이 훨훨 타오른 용광로에서 구출하시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인가?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인가?
성령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며 타오르는 지옥 불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불 침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가?
죽은 지 사흘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순식간에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인가?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성도들 봉인하시는 그 하나님인가?
성도들의 순종에 따라 성도를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인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인가? 거룩한 하나님인가?
공중에 강림하셔서 순식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때에 살아 있는 성도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어 올리실 그 하나님인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가?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생긴다.

2. 믿음으로 걷는 것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까지는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셔 들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이상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시작이다.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기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는가?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를 심지 않는가?
사과나무는 세 종류가 있다: 죽은 것, 어린 것, 장성한 것.
죽은 것과 어린 것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장성한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위의 식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다.
교회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 듯하게 할 수 있다. 치장해서 장성한 사과나무처럼 보인다.
아내는 남편이 인정하는 정도의 크리스천이며 남편 역시 아내가 인정하는 정도의 크리스천이다.
그 이상일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가 변했어요, 아빠가 변했어요, 엄마가 변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점검해야 한다. 죽었는지 아니면 어린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으려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가장 저급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결과 삶에 능력이, 활력이, 기쁨이 없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도 믿음으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걸으면서도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후자가 없으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를 피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님의 인도 하에 나(육체)를 죽이며 피나는 연습과 자기 성찰과 고백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일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 잠에서 깨야 한다.

3. 믿음으로 걷는 예

무엇이 믿음으로 걷는 것일까?
오지로 떠나는 선교사, 믿음으로 걷는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악조건에서만 믿음으로 걷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성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잠자면서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롬14:23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도, 누워서도, 걸으면서도, 아내와도, 아이들과도, 남편과도 심지어 원수와도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진공청소기: 카펫 작동법, 레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야 쉽다.

4. 믿음의 크기

큰 믿음, 강한 믿음, 불같은 믿음 요구함,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눅17:5-6, 제자들의 간청, 겨자씨 한 알, 뽕나무
믿음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이다.
여러분이 아주 강한 대상에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은 이미 끝난 것이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하면 된다.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려 한다.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믿음은 다 아는 게 아니다. 비행기를 다 알기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 탄다.
처음 타는 사람, 몇 번 탄 사람, 아주 오래 탄 사람
믿음이 크든 적든 다 타기만 하면 뉴욕에 간다. 그런데 비행기에서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
평안의 문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반신반의 하는 사람, 잠자고 평안히 오는 사람
확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떻게 뉴욕에 갔는가? 믿음으로, 비행기로
믿음으로 비행기를 탔으나 일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비행기이다.

결론

믿음을 키워야 한다. 입신, 방언, 신유, 꿈, 환상, 직통 계시 불신앙의 행위
이것들은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신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확신하는가?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을 확신하고 믿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았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온다. 롬10:17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읽고 그분을 알게 된 이후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비행기를 자꾸 타면 비행기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에 믿음을 시험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 주님이 요구하는 때에 믿음을 자꾸 발휘해야 한다.
특별히 믿음은 슬플 때나, 환난 중에서 시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소원이요, 아내의 소원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주에 성찰을 통해 “내가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바른 것을 가졌는가?”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몇 차례 읽어 보기 바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길 바란다.